

민주당, 작년 의원 후원금 '씩쓸이'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명 단위·원, 2018년 기준

순위	의원	소속	후원금
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3억2379만
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3억2143만
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3억2066만
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3억1721만
5	주호영	자유한국당	3억1406만
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3억1391만
7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억1217만
8	정동영	민주평화당	3억987만
9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3억918만
10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3억909만

하위 10명

순위	의원	소속	후원금
1	이우현	자유한국당	1028만
2	염동열	자유한국당	1592만
3	한선교	자유한국당	2000만
4	황영철	자유한국당	2123만
5	유민봉	자유한국당	2790만
6	이종명	자유한국당	2886만
7	홍문종	자유한국당	2960만
8	오신환	바른미래당	3015만
9	진영	더불어민주당	3020만
10	장정숙	바른미래당	3146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원금 톱10 중 민주당 의원 8명이 이름을 올리며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故노회찬·이근현

3억2066만5000원 노웅래 1위...박주민 2위 밀려

'불법자금 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최하위 기록

정당별 1인 평균 모금액 민주당-평화-정의-한국順

(의원직 상실) 전 의원을 제외한 29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의 국회의원 후원회는 모두 493억8291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540억9749만원(의원 1명 당 평균 1억8038만원), 2016년에는 535억3230만원(의원 1명 당 평균 1억7964만원)이 걸렸다.

지난해 후원회당 평균모금액은 1억6571만원이다. 이중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회는 34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었다. 노 의원은 3억2066만5000 원을 후원받았다.

2017년 후원금 1위에 올랐던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3억2143만2825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정애(3억2066만5000원) ▲이해찬(3억1721만8751원) ▲주호영(3억1406만2999원) ▲박용진(3억1391만5509원) ▲안규백(3억1216만9756원) ▲정동영(3억987만4672원) ▲전재수(3억918만4742원) ▲김영주(3억909만3326원) 순이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4위)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8위)을 빼고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이우현 한국당 의원은 1028만4462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최하위에 기록했다. 이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한국당 염동열(1592만56

원), 한선교(2000만원), 황영철(2123만8751원), 유민봉(2790만원), 이종명(2886만원), 홍문종(2960만원)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3015만1018원), 진영 민주당 의원(3020만원),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3146만원) 등이 하위권에 기록됐다.

정당별 1인 평균 모금액은 당 규모와 다르게 나타났다. 소수정당이 거대당을 뛰어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1인 평균 모금액에서 2억338만1578원으로 1위를 지켰지만 한국당(1억3656만3989원)은 4위에 그쳤다. 평화당은 2억241만7182원으로 2위, 정의당은 1억7874만7269원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1억850만8307원, 무소속 1억379만3430원, 대한애국당 1억7275만6446원, 민중당 1억3093만100원 등이었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50억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 단위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균 모금액의 2배인 각각 100억원,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 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당, 통합 이슈에 자강(自強) 택하다

비공개 의원 워크숍 끝장토론...정계개편 신중론 작용

민주평화당이 최근 거론된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과의 통합 이슈와 관련해 당분간은 자강론(自強論)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평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23일 비공개 의원 워크숍에서 통합에 대한 열띤 끝장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도 워크숍을 다녀온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의 진로와 최근 정계개편 논의에 관해서는 당의 외연확대와 위상 제고 등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의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그에 따른 한국당에는 평균 모금액의 2배인 각각 100억원, 3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않고 있다. 각 당은 스스로가 제3당 세력 결집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견제가 있다는 점도 논의가 멈춘 이유 중 하나다. 당 지도부에서 박주선·김동철 의원을 향해 통합론이 다시 한 번 거론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며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평화당 내부에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밝힌 평화당 관계자는 "종전 '평화의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것처럼 제3세력의 결집이 공동교섭단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현재보다 세력도 커지고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3세력 결집을 위해 현 소속 정당을 빠져나와 무소속으로 활동하며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거나 평화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냐는 한 당원의 흡수, 의원들의 당적 변경, 탈당 등 세 결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발전된 안(案)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감대를 이뤘다고 해서 제3세력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이미 교섭단체인 현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토론회 이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된 것은 전혀 없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탈당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데, 이미 교섭단체에 속해 있는 의원이 제3세력 결집을 위해 탈당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준표 "난 5·18유공자 아냐...명단 공개해 오해 풀어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5·18유공자 명단'은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5·18유공자 명단에 없고 유공자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정신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 명단에서 봤다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5·18민주화 유공자라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어떤 이유

인지 모르나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나처럼 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지복을 받고 있는데

"유공자 명단, 당당하게 공개 못하는 이유 뭔지"

"나는 15대 국회 진출...5·18과 아무 상관 없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5·18유공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5·18유공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국가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

판"이라며 "5·18특별법은 1995년 12월 국회에서 민자당 주도로 제정됐고 전두환 노태우 수사도 그 무

렵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1996년 1월 민자당에서 이름이 바뀐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15대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3대까지 받는다는 자랑스러운 5·18유공자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의아하다"며 "명단을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뉴스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